

尹시장 “지원하되 간섭 않겠다”...비엔날레 이사장직 내놓기로

광주 ‘문화개혁’ 새 판 짜기 시동



박근혜 대통령을 직설적으로 풍자해 논란의 중심에 선 홍성담씨의 결계 그림(세월오월) 사태가 창설 20주년을 맞은 광주비엔날레재단과 문화재단 등 문화행정 개혁의 도화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용우 비엔날레재단 대표이사가 사퇴의사를 표명한 상황에서 지난 22일 윤정현 광주시장이 비엔날레 이사장직을 내놓겠다고 선언한 것은 ‘문화에 대한 불간섭’ 의지를 거듭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현재 공백이거나 공석을 예고한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광주시립미술관장 인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문화 빅3 수장’ 인선 관심

문화수도 결맞는 원칙 세워야

윤정현 광주시장은 22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향후 문화정책은 지원은 하고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켜가겠다”며 “예술가의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검토해 문화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윤 시장은 이를 위해 “광주시장이 맡고 있는 비엔날레재단 이사장 당연직 제도를 명예 이사장제로 개선해 재단에 전문성과 유연성을 부여하겠다”며 “광주비엔날레가 20년이 됐다면 어떻게 발돋움할지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시장이 언급한 명예 이사장제는 비엔날레 재단의 최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손을 떼겠다는 의미다. 비엔날레 재단 정관상 시장은 당연직 이사장을 맡아 비엔날레 개최, 재단 운영 등에

관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으나, 명예 이사장제를 도입하면 명목상의 사결정 과정에 개입할 수 있다.

윤 시장의 거취표명과 이용우 대표이사의 사퇴발표로 비엔날레 재단은 사실상 컨트를 타워의 공백으로 대수술이 불가피하게 됐다. 지난 2007년 ‘신정아 감독 가짜박사 학위’ 사건으로 재단 이사진이 총사퇴한 데 이어 두번째다.

지역 문화계에서는 윤 시장의 선언을 계기로 행정불간섭 원칙이 구두선에서 글씨로 남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의 확고한 전통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하고 있다.

문화계에서는 또 향후 광주비엔날레재단 대표이사, 광주문화재단, 광주시립미술관 등 ‘3대 문화수장 인선’이 광주시 문화정책 의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문화행정에 대해 철저히 자율성을 보장하되, 책임을 강화”하는 광주시의 문화정책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인선이 가장 중요한 현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는 28일 퇴임하는 시립미술관장직에는 윤 시장의 선거 운동을 도운 것으로 알려진 A씨가, 비엔날레 대표이사에도 특정인사의 이름이 벌써부터 거론되고 있다. 광주비엔날레의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진 만큼 지역을 떠나 한국을 대표할 만한 중량급 인사가 필요하고, 문화재단과 시립미술관에도 문화행정을 아우를 수 있는 인물이 절실하다는 지역 여론과는 사뭇 다른 것이다.

이기훈 지역문화교류재단 사무처장은 “지역에서 문화가 꽃피기 위해서는 행정의 무간섭 주의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野 “세월호法 3자협의체 구성”... 與, 거부

여·야·유가족 참여 제안 새누리당 “위험한 발상”

세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4일 세월호특별법 해법을 찾기 위해 여야와 유가족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이를 사실상 거부, 경색된 세월호 정국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관련기사 3·4면>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소속 시·도지사와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미 지난 7월10일 세월호유가족 측이 3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이같이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선 “지금 시점에서 가장 큰 생선은 세월호특별법”이라면서 “미흡하지만 그동안 여야 협상을 통해 진상조사위 구성 방식의 진전이 있었고 특검 추천권도 유가족 뜻을 반영할 길을 열었지만 유가족이 아직 부족하다고 하시니 더 끝까지

노력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3자 협의체가 필요한 이유로 “그간 협상에서 채널의 혼선, 과정의 불신을 견어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라면서 “유가족 측에선 3시간 논의에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세정치연합이 여야 간 세월호법 재협의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3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것은 사실상 재협의를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이미 여야 원내

대표 간에 두 차례나 이뤄졌던 합의를 깨고 논의의 틀을 바꿔 새로 협상하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라며 거부했다.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여야 간의 논의구도를 전혀 다른 새로운 구도로 변질시키려는 의도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3자 협의체를 통해 입법을 하자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와 의회민주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매우 위험스러운 발상”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ikpark@



“벽화보고 건강 장수하세요” 23일 건강장수마을인 광주시 남구 대지동 하촌마을에서 어르신들과 대촌중앙초등학교 학생들이 마을 골목 곳곳의 벽면에 예쁜 벽화를 그리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홍성담 ‘세월오월’ 전시 자진 철회

“사태 해결 기미 없어 결단”

광주비엔날레 특별전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풍자해 논란이 된 홍성담 작가가 작품 ‘세월오월’을 전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관련기사 3면>

홍 작가는 24일 오후 광주비엔날레재단 사무실에서 이용우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 윤범모 책임 큐레이터 등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세월오월’ 작품에 참

여한 동료 화가들과 논의한 끝에 작품을 광주비엔날레에 걸지 않을 것을 결정했다”며 자진철회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이 결정과 관련해 “윤정현 광주시장과 이용우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가 서로 떠남기는 등 사태가 해결될 기미가 없고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결단을 내리게 됐다”며 “광주비엔날레가 무사히 끝날 때까지 작품을 전시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과거에는 독재권력에 의해 내 작품이 유배됐다면 지금은 지자체 권력에 유배된 것이나 마찬가지다”며 “인권과 문화도시 광주는 껌대기만 남았고, 이미 죽어 버린 광주에서 전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홍 작가는 또 “사퇴를 밝힌 윤범모 책임 큐레이터가 복귀해 이번 사건이 남긴 후유증을 수습하길 바란다”며 “‘세월오월’을 즉시 반환하고 작품이 붙어질 자리에 100인 릴레이전으로 작은 결계그림을 붙일 것

을 바란다”고 요구했다.

윤 전 책임 큐레이터는 “홍 작가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직무로 복귀해 이번 사태를 수습하고 특별전을 원만하게 마무리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 대표이사는 “홍 작가의 요구는 현실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월 개막한 광주비엔날레 20주년 특별 기념 프로젝트 특별전에서 대통령을 풍자한 ‘세월오월’의 전시가 유보돼 이 대표이사가 사의를 표명했고 윤 큐레이터가 사퇴하는 등 파행을 겪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학교 설립 60주년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학부 605-1114, 대학원 605-1115

‘죄와 벌’ 기준 시민들에 묻는다
광주지법, 양형 컨퍼런스 ▶2면

도시재생 문화가 해법이다
런던 코인 스트리트의 변신 ▶18면



2014년 Summer Special 그린피 할인 Event

8월 1일(금) ▶ 8월 31일(일)



특별할인				(단위: 원)			
구분	T/O 시작	월~금	토~일(공휴일)	구분	요일	산호시각	비선호시각
18홀 기준	1부	63,000	133,000	1박 2일	월~금	176,000	156,000
	07:00~09:00	73,000		(36홀+조식+골프텔)	금~토	236,000	226,000
	2부		12:00~14:00	토~일	276,000	266,000	
				일~월	216,000	206,000	

*특별할인은 한정하지 않으며, 카트비 별도금액입니다. *1박 2일 패키지 요금은 4인 기준 36을 원로기준입니다. *1인 무료 라운드상품권은 당일에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상기 요금은 당사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기타할인					
내용	대상	기간/해당요일	그린피 할인 등	비고	
사이버회원 추가할인	신규가입자 및 기존회원	2014. 7. 7일~9. 30일	추가 10,000원 할인	주중, 주말 모두적용	
Lady Day	여성고객 전원	매주 월요일	그린피 63,000원 적용		
그랜드 시니어 할인	만 60세 이상 고객 전원	월~금(공휴일 제외)	추가 10,000원 할인	프린트 산본증 제시	

*남성 복장은 무릎 위 반바지는 착용할 수 없으며 7부 반바지는 허용됩니다. *위 공지 카트비는 별도이며 특별할인은 되지 않습니다.





함평다이내스티컨트리클럽

DYNASTY GOLF CLUB
예약문의 061.320-7700/7777 전남 함평군 학교면 서암매길 242